

제주대신문

중앙자치기구 “큰 문제는 없어, 대체로 무난”

총학·총여 상반기 평가 60점 넘어… 제주대신문 여론조사 결과

‘투표하겠다’ 70% 자치선거 참여율 높을듯

제주대신문에서는 지난 6일부터 4일간 재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중앙자치기구들에 대한 지지도와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했다. 전체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단과대·학년·성별 학생수를 고려해 5%씩 표본을 설정했다.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4.2였다.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전체 동아리인 2076명을 모집단으로 5%를 표본으로 뽑아 108명을 설문조사했다. 동아리연합회 조사는 신뢰도 95%에 표본오차 ±9.43였다.

총학생회 61점, “지지한다” 22.5%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상반기 활동에 평균 61점을 부여했다.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47.9%로 가장 높게 나

왔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6.3%)’와 ‘지지하는 편이다(16.2%)’라고 답한 비율은 총 22.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22.3%)’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7.4%)’는 총 29.7%로 집계됐다.

총여학생회 62점, “지지한다” 22.1%

총여학생회는 상반기 활동에 대해 평균 62점을 받았다. 지지도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6.3%)’와 ‘지지하는 편이다(15.8%)’를 합한 22.1%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19.7%)’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6.3%)’로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총 26%로 집계됐다.

총대의원회 57점, “지지한다” 15.3%

대의원회는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로 57점을 받았다. 지지도 문항에서는 ‘보통이다’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답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5.2%)’와 ‘지지하는 편이다(10.1%)’로 나타나 총 15.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23.2%)’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7%)’를 합한 30.2%로 집계됐다.

동아리연합회 49점, “지지한다” 14.9%

동아리연합회는 상반기 활동 평균 점수를 중앙자치기구 중 가장 낮은 49점을 받았다. 지지한다는 비율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0.9%)’와 ‘지지하는 편이다(14.0%)’로 나타나 총 14.9%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26.2%)’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9.6%)’로 총 45.8%에 이른다.

중앙자치기구 선거 약 70% 참여 예정… 불참 이유는 “효능감 부족”

중앙자치기구 선거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69.8%의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13.8%, ‘아직 미정’은 16.4%로 집계됐다. 투표 거부 이유로는 ‘투표 후에도 별로 달라질 점이 없을 것 같다(효능감 부족)’는 항목을 41.7%로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학연 지연 혈연 위주 선거에 대한 실망’이 2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투표를 해도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불신감)’이 18.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들이 느끼는 효능감 부족과 불신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희 기자

단대축제 풍성, 전시회·토론회·학술행사 등 활발

학내 곳곳에서 축제, 학술제 등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사범대학의 ‘사목제전(주최 승승장구 사범대학 학생회)’을 시작으로 단과대학 축제들이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사목제전’은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대운동장 및 한라터에서 진행됐다. 축구, 농구, 족구, 농뿔이, 씨름, 이어달리기 등의 다양한 체육 행사와 저녁에는 장기자랑, 가요제가 진행됐다.

경상대학의 ‘씨울제(주최 별을 쏘다 경상대학생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이뤄졌다. ‘천연 팩 만들기’, ‘내 손톱을 소중하게’ 등의 참신한 기획의 행사들과 함께 가장대회와 학과별 장기자랑은 경상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는 학과별 축제가 진행됐다.

의과대학의 ‘의연제(주최 의과대학생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가요제 ‘슈퍼스타J’와 미인대회 등의 행사와 I.C.U 밴드의 공연으로 성황리에 이뤄졌다. 수익금이 불우이웃들에게 쓰인 사실 또한 주목받을 만했다. 인문대학은 각 학과별 축제들의 규모가 커서 작년부터 학과별 축제제로 대체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열린 독일학과의 ‘I.F.D.K FEST’를 비롯해 22일 열린 일어일본학과와 ‘파랑제’,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회학과의 ‘진의제’, 29일 열린 중어중문학과



지난달 21일 사범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사범대학 ‘사목제전’에서 학생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고 있다.

‘홍향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진의제’에서는 사회학과 분과 ‘현대사회문화연구회’가 반값등록금과 강정해군기지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통해 학술 행사가 극히 적은 현재의 단과대 축제에서 학술적인 면모를 채워 넣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진리 탐구를 추구하는 학술제들도 주목을 끌었다.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동안에는 정치외교학과 주최로 제4회 모의 유엔회의가 열렸다. 이번 모의 유엔회의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촉발된 나라는 영토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R2P(국민보호의무)옹어의 명확화와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떤 방

식으로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컴퓨터공학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공과대학 4호관에서 제26회 컴퓨터공학과 작품설명회를 개최했다. 1학년부터 졸업반까지, 평소에 갖고 닦았던 지식을 작품에 녹여내 주목을 끌었다.

또 언론홍보학과에서도 지난 4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영상제를 열었다. 언론홍보학과 학생들이 여름방학 전부터 제작했던 드라마, 다큐멘터리, 미디어 비평 등을 상영했다.

앞으로 열릴 축제·학술제들도 주목할만 하다. 오는 10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는 행정학과가 마련한 모의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번 주제는 요즘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문제이다.

김명지 기자

장학금 지급률 거점국립대 2위

지난해 1인당 127만 5천원 지급

제주대가 2010학년도 학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률이 국립대학교 중 6위,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10개)중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제주대는 지난해 학부 재학생 9346명에게 모두 119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재학생 1인당 127만5000원을 수여했다. 이는 2009학년도 학부 재학생 1인당 110만원에 비해 15.9%가 상승된 것으로, 학부 장학금 총액에서도 2009학년도 104억원보다 15억원 정도 증액돼 지급됐다.

제주대는 국가장학금(희망드림), 지방자치단체 인재육성 장학금(제주특별자치도, 육전군, 강릉 등)유치, 내부 장학금(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증액, 외부 장학금 유치 등을 통해 장학금 재원을 확충했다.

또한 향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증진과 우수인재 양성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장학금과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재원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기성회비 장학금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전원, 오는 14일까지 신입생 모집

의전원은 오는 13일까지… 각각 40명 정원

201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정시 신입생을 모집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1일부터 14일, 의학전문대학원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하며 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은 △가군 일반전형 18명,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2명 △나군 일반전형 18명,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2명으로 모두 40명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 30명, 제주지역학교 출신 성적우수자 특별전형 8명, 의과학자(M.D.-Ph.D.) 특별전형 2명으로 모

두 40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형방법은 1단계에서 학사과정성적, 공인영어성적, 법학전성시험(LEET) 성적을 합해 400%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고사(서류심사, LEET 논술, 구술고사) 성적을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12월 15일, 의학전문대학원은 12월 16일이다. 기타 자세한 입학전형 정보는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형목 수습기자

발전후원의 집 후원금 2억원가량 모금

지난 97년 도내 업체들로 시작된 ‘제주대 발전후원의 집’ 후원금이 15년간 꾸준히 모여 1억9400여만원 가량 모였다.

발전후원의 집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받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도내 36개 업체가 발전후원의 집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장학사업, 학생 복지사업,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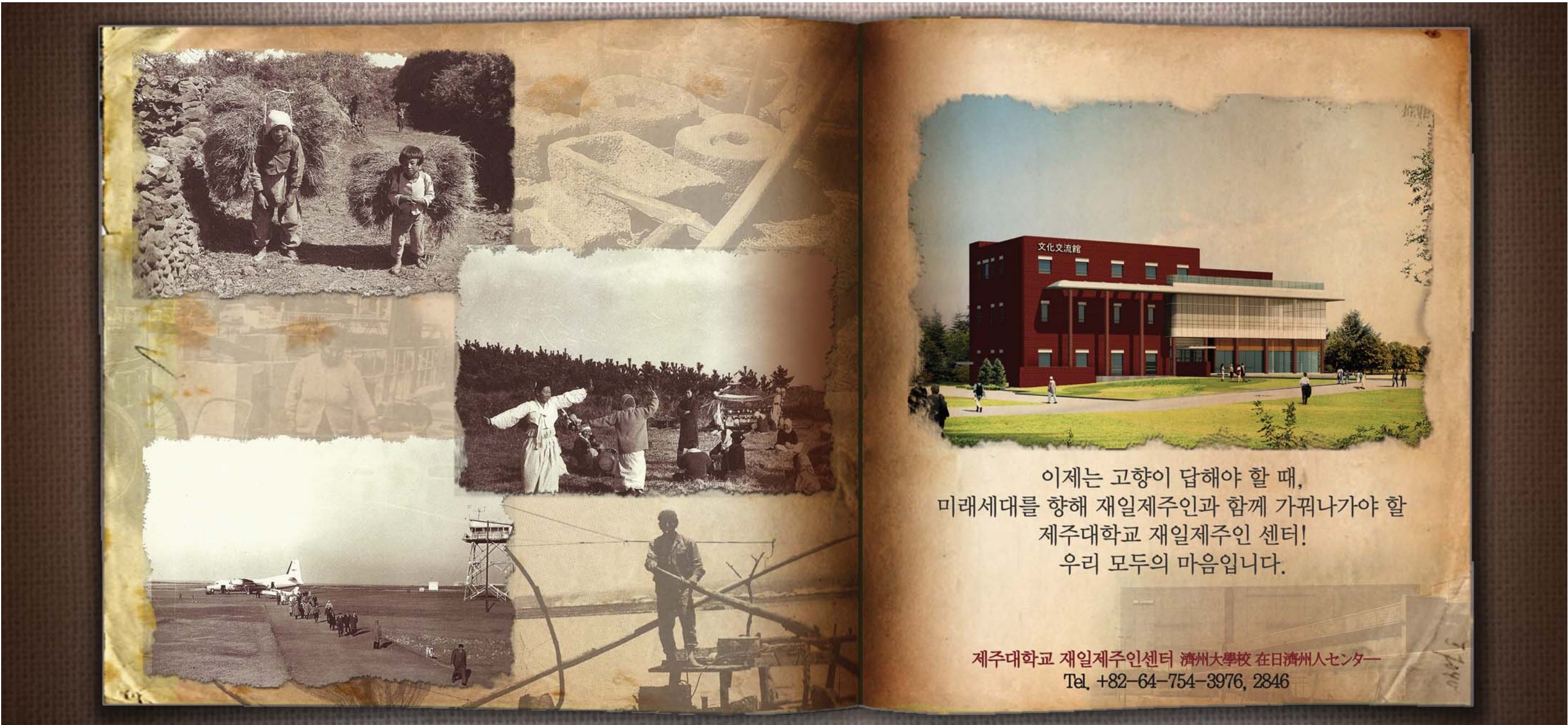
한편 제주대는 ‘제주대 발전후원의 집’으로 등록된 업체를 제주대발전기금 홈페이지에 등록하며, 학내 소식지와 게시판 등에도 홍보하고 있다.

강민성 수습기자

사령

강형목(사학 2)
강민성(언론홍보 1)
김동현(언론홍보 1)
고현아(사회 1)
양혜정(환경공학 1)

수습기자로 임명함
이상 10월 4일자



사설

대학 정책 환경 변화에 주목한다

지난 9월 23일, 정부는 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중 하위 15%로 지정된 이들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은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행해진 것이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재학생 1만 명 이상 유형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는 1만 명 미만 유형에서, 부산교대는 교원양성대학 유형에서 구조조정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제주대학교는 재학생 1만 명 미만 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대학교의 재학생 수는 지금 1만 명 선에서 미세하게 변동하고 있다.

대학의 정책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은, 지난 9월 5일 발표된 사립대학 부분의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과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번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우수 대학 행·재정지원 확대’라는 당근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대학 행·재정지원 축소’라는 채찍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근에서 채찍으로’ 구조조정 정책이 전환 되면

학생회관 상행위 기승 “언제까지”

변칙 판매로 대학생 현혹

학내에서 상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회관 관리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르면 ‘회관내의 질서유지 및 공동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제주지사가 대학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학생회관 1층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SK텔레콤 제주지사 측은 총학생회의 허락을 받고 행사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파견직원들은 “우리 통신 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또한 관행적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종종 판매를 한다”며 “A/S점수와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공 등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영리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취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버젓이 ‘특판 행사, 할부금 및 위약금 전액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놓은 채 이들은 보상판매는 물론이고 신규 고객 또한 모집하고 있었다.

경상대학의 한 외국인 학생은 “비자문제로 원래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파견 직원이 한국인 학생 명의를 빌려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학생에게 동의 여부 전화 없이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원래 미성년자가 신규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전화와 있어야 한다.

고석범(학생복지과)씨는 “외부업체에서 자리를 편 것을 보고 자리를



지난 23일 학생회관 1층에서 SK텔레콤 파견 직원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학생회에서 영리행위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이후에는 자리 사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학내에서 휴대폰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판촉행사를 승인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벌어지는 학내 상행위를 우려하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지은(정치외교 1)씨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학교 내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게 보기 안 좋았다”며 “엄격한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갈등과 소통

문충성 명예교수, ‘허물어버린 집’ 발간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농경시대 시작 시점인 5000년 전, 우리가 어렵פות이 기억할 수 있는 50년 전, 5년 전,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다만 많고 적음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도 예외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탐라국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어지면서 현안사업이나 사회가치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갈등들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본요소인 생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과정이라 이해하고 싶지만 그 갈등을 푸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서투른 것 같다.

사람에게는 편향확증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대부분 갖고 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호응하는 의견이나 소식만을 선호하고, 반대편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심리적 요인이다. 이러한 태도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편견으로 이어져 상대방과 대화가 힘들게 된다. 이런 것은 요즘 사회의 키워드인 소통의 부재가 생겨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갈등을 잘 풀어 가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대립, 반목이 폭력으로 표출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유지를 둘러싼 갈등의 안타까움이다.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소통의 방법으로 토론을 자주하게 된다. 각 방송국에서 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아직도 토론문화가 멀었다는 것을 가끔씩 하게 된다. 토론(討論)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언(言)+촌(寸)+언(言)+륜(輪)인 것이다. 즉 말을 쪼개거나 나누어 돌아가며 진행하는 것이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토론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고도의 압축 성장, 정치적 우여곡절과 급변에 따른 사회구성간의 공감과 경험 공유의 폭이 좁은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소통의 기본이 되는 토론에 대한 교육부재도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도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예리히 프롬은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이것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대통합을 이루는 기술도 배워야 서로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최소화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거리 상대방을 향하여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간단하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대학의 교양과정에서도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지난달 30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허항진 총장과 전북대 서기석 총장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제주대와 전북대(총장 서기석)가 지난달 30일 전북대 진수당(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교육 및 연구 분야 선진화와 상호협력을 위한 학술교류협정'과 '학생·학점 교류협약'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은 교직원과 연구 인력 등을 교류하고 학생 교류를 통해 학점도 상호 인정키로 했다.

또한 공동강의 및 연구 학술회의

등을 함께 개최하며,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시설물의 상호 이용에도 협력키로 하였다.

허항진 총장은 “최근 놀라운 발전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 전북대와의 교류협정체결은 제주대 발전 뿐 아니라 양 대학의 교육과 연구 분야를 선진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의 우수한 시스템을 배워 이를 우리 대학에 맞게 적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충성(독일학과) 명예교수가 시집 ‘허물어버린 집’을 발간했다.

문 교수의 10번째 시집인 이번 시집은 총 4부로 나뉘어 70편의 시를 담고 있다. ‘허물어버린 집’은 제주에서 벌여졌던 역사적인 사건 4.3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주어로 쓴 책을 표준어로 적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는 책을 통해 제주어가 이질적인 언어가 아닌 있는 그대로 독자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4.3 사태를 직접 겪은 작가가 4.3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까지 4.3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는 4.3



문충성 명예교수의 시집 ‘허물어버린 집’

때의 생생한 제주역사를 2.3부는 제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문충성 명예교수는 1938년 제주에서 태어났으며 1977년에 『문학과지성』을 통해 시단에 등단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고용희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1.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2.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3.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4.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5.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6.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7.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8.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제주대병원, 대장암의 날 행사 개최

제주대병원, 성인 ADHD 클리닉 개설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 정신과에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에 대한 성인 클리닉을 개설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흔히 아동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6%에서 발견되며 그 중 절반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ADHD를 가진 성인은 중독 성향이 강하여, 알코올이나 담배, 성, 인터넷과 같은 강력한 자극에 빠지기 쉽고 우울증이나 강박증, 불안장애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 신체적으로도 심장질환이나 비만, 골다공증을 수치, 수면장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성인 ADHD 클리닉은 매주 화요일(곽영숙 교수)과 금요일(신지현 교수) 오전 10시 ~ 12시에 운영이 되며 진료관련 문의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064-717-1850)로 하면 된다.

병원내 감염 예방 위한 손씻기 행사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손씻기 행사를 마련했다. 감염관리실(실장 허상택 감염내과 교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는 손씻기 방법을 배우는 시간 등이 마련됐다.

동아리연합회, 감사 지적 최다… 총학은 6개 지적

과대표 62% 참여, 겨우 넘은 정족수

질의 없이 각 예산 일사천리 통과

2011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 총회가 육하원칙 총대의원회(의장 김민석) 주최로 지난달 20일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각 학과 1~3학년 과대표 총 205명 중 정족수(과반수 103명)를 조금 넘는 128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의 △상반기 운영 감사평가 보고 △하반기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 회의가 진행됐다. 상반기 운영 감사평가는 총대의원회가 공약감사, 사업감사, 회계감사 세부분으로 나눠 실시했다. ‘똑똑똑’ 총학생회의 경우, 공약과 사업부분에서 감사 자료집에 근거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회계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간이영수증 3회 사용, 졸업식 및 간부수련회 수익금

액 미기록, 정산서와 회계장부 날짜 불일치 등 총 6개 지적을 당해 별점 7점을 받았다. ‘여보세요’ 총여학생회는 공약부분에서 자료집 미제출, 회계부분에서 수령증 내용 오기, 월별지출내역서 날짜 오기 등 5개 지적으로 별점 6점을 받았다.

특히 이번 감사평가에서 ‘YOU&I’ 동아리연합회는 통장 사본 미제출, 통장잔액과 회계장부 불일치 등 지적사항이 19개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공약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약감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반기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기구가 월별 (가)예산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후 과대표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

졌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질문자가 아무도 없어 발표 후 바로 투표로 이어졌다. 투표 결과는 △똑똑똑 총학생회, 127명 중 100명 찬성 △여보세요 총여학생회, 127명 중 104명 찬성 △육하원칙 총대의원회, 127명 중 97명 찬성 △You&I 동아리연합회, 125명 중 85명 찬성 △졸업준비위원회, 125명 중 94명 찬성 △장에인 인권대책위원회 125명 중 99명 찬성으로 모든 투표가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투표 이후에 이뤄진 기타 안전에서도 질문자가 아무도 없어 회의가 끝나려고 하자 기자가 “왜 거의 모든 예산안에 세부내역이 전혀 없느냐”며 “특히 총학생회 예산안을 보면 아라체전에 행사비라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 김민석 의장은 “이 책자를 만드는 데 60만원 가량이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

해서 책자를 만들면 100만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약 측면에서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라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용택 총학생회장은 “예산안은 작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만든다”며 “이 예산안은 말 그대로 ‘가예산안’이기 때문에 학생복지과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 이후에 세부내역을 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세부내역을 쉰다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학생복지과와 예산안 조율을 하게 순서 아니냐”며 “인문대학 학생회의 경우, 같은 아라체전 행사비라도 ‘단체티셔츠’, ‘의료용품’, ‘점심’ 등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행정실에서 다른 것대로 평가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현용택 회장은 “내년 총학생회 회장에게 인수인계 때 그 부분을 신경쓰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문화도형디자인전공 졸업전시회

25명의 4년 결실 담아내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 산업디자인학과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산업디자인학과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전시회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제주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4년의 결실과 아쉬움을 담아낸 이번 전시회에는 졸업생 25명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됐다. 전시회를 준비한 정재환(문화조형디자인전공 4)씨는 “4학년 학생들

모두가 대학을 다니며 배운 학업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고생을 하며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즐겁게 자신의 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독일 로젠하임대와 학술교류협정

디자인·예술 분야 교류학생 양해각서 체결

제주대는 독일 로젠하임응용과학대학교와 지난달 28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정은 공동의 학문적, 문화적 분야의 상호 협력과 독일과 한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체결했다.

또 제주대 공과대학(건축학부, 산업디자인학부) 및 미술학과와 로젠하임응용과학대학 실내건축학부(학장 송 린)는 교류학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양 대학은 △항후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개발 △공동 학술 및 과학 활동의 조직(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및 강의 등) △연구진 및 교수진의 교환 △학생 교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출판물 및 기타 자료의 교환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대학은 건축학부, 산업디자인학부, 미술학과 및 실내건축학부 등 건축, 디자인, 미술 관련 분야 학생들을 매 학년마다 최대 5명의 학생들을 방문·교환 학생의 자격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편 로젠하임응용과학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총장실에서 제주대와 독일 로젠하임응용과학대학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인테리어디자인을 비롯해 조경디자인, 예술, 사진학 등을 전공한 교수진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과대학과의 학술 체결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속시설 탐방 <8> 평생교육원

“지역민 평생학습 대학이 도와드릴게요”

퇴직한 중년이 뒤늦은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곳, 열정이 많은 20대가 대학시절 놓칠 수 없는 스펙을 쌓기 위해 가는 곳. 평범한 누군가가 그저 즐겁기 때문에 가는 곳. 이들의 발걸음이 한결같이 향하는 곳은 ‘평생교육원’이다. 우도에서 배를 타고 매년 제주대에 등교하는 중년의 남성부터 시작해, 10년 가까이 안성수(국어교육) 교수의 수필 강좌만 듣고 있는 열혈 수강생까지. 평생교육원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고 인간중심의 적성교육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1998년 4월 10일 인가 됐으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학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양, 외국어, 예술, 전문, 생활체육 등 5개 과정에 80여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배움의 끈이 일찍 끊긴 이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고 싶은 대학생들까지 모두들 평생교육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이 POP아트(예쁜 손글씨)를 배우고 있다.

특히 교직원과 재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는 20% 할인된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평생교육원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사라캄퍼스의 개설 과목을 늘리고 올해부터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내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수(국어교육) 평생교육원장은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적성 과 취미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의 취업전선에서도 도움이 되는 스펙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통일문제 세미나

지난달 27일 개최

‘G2시대, 한반도 통일과 재외 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11 재외동포 초청 통일문제 세미나가 제주대와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 주체로 지난달 27일 제주 KAL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섹션별로 나눠 제1회회는 ‘G2시대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제2회회는 ‘비람직한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제3회회는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성준 평화연구소장을 비롯한 제주대 교수들이 참여해 통일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강민성 수습기자

탐라문화연구소, 석주명 학술대회 개최

7일 인문대 2호관 세미나실에서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탐라문화연구소(소장 윤용택)와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남상호) 주체로 오는 7일 인문대 2호관 세미나실, 8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비박사, 에스페란토운동가, 제주학선구자 등으로 알려진 석주명 선생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의 학문적 위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 60여년 전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융·복합, 로컬리티의 인문학 등을 연구한 석주명 선생의 연구 사례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그 한계도 진단할 계획이다.

학술대회의 첫날 프로그램은 석주명선생과 관련된 기초발표와 나비학

과 관련된 나비학분과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둘째 날에는 제주학과 제주어와 관련한 학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발표와 토론 뒤에는 석주명 선생의 근무지였던 아열대농업생명과 학원구소를 방문해 그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윤용택(철학) 탐라문화연구소장은 “석주명 선생은 제주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던 4.3이전의 제주의 자연과 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해온 제주학의 선구자”라며 “60여년전 그가 연구했던 융·복합 학문 등은 앞으로 자생적 학문을 세워보려는 제주학계에 दें갓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201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

전영준(사학과) 조교수-여말선조
△학사: 동국대 국사교육
△석사: 동국대 교과교육
△박사: 동국대 사학과
최종학위논문명: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송현정(국어교육과) 조교수-문법교육
△학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 서울대 국어교육과
최종학위논문명: 한국어의 호응 관계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김정훈(경영학과) 전임강사-조직론
△학사: 제주대 경영학과
△석사: 국민대 경영학과
△박사: 국민대 경영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전략적 이슈 셀링 의지와 선행요인 및 결과분석

황임경(의학과) 부교수-의료인문학
△학사: 한림대 의학과
△석사: 서울대 의학과
△박사: 서울대 의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의학과 서사

김문정(간호학과) 전임강사-모성간호학
△학사: 부산대 간호학과
△석사: 서울대 간호학과
△박사: 서울대 간호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김선형(의학과) 기금 조교수-진단검사의학
△학사: 고려대 의학과
△석사: 고려대 의학과
△박사: 고려대 의학과
최종학위논문명: 한국의 말라리아 감염환자에서 Toll-like receptor의 유전자 다형성

유원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임강사-선박구조생산
△학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박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최종학위논문명: 다목적 환경하에서 위상을 고려한 트러스 설계

김성준(의학과) 조교수-치과학
△학사: 서울대 치의학학과
△석사: 서울대 치의학학과
△박사: 서울대 치의학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수중 불투명 복합 레진의 반투명도와 차폐증에 관한 연구

송현주(의학과) 부교수-소화기내과
△학사: 이화여대 의학과
△석사: 의화여대 의학과
△박사: 의화여대 의학과
최종학위논문명: Distribution of Hepatic Nerve Fibers in Cirrhotic Mice Model Induced by Carbon Tetrachloride: Immunohistochemical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Study

최재혁(의학과) 조교수-외과학
△학사: 한양대 의학과
△석사: 성균관대 의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유방 관상피내암의 수술적 치료방법에 따른 임상 양상 및 병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

조현천(독일학과) 조교수-독일시 및 독일문화
△학사: 부산대 독어독문학과
△석사: 부산대 독어독문학과
△박사: 독일카셀대 독어독문학과
최종학위논문명: Wege zu einer Widerstandskunst im autobiographischen Werk von Thomas Bernhard

김호민(전기공학과) 조교수-에너지변환
△학사: 제주대 전기공학과
△석사: 연세대 전기공학과
△박사: 연세대 전기공학과
최종학위논문명: 차게스위치를 이용한 분리형 박막구조의 초전도전원장치 특성에 관한 연구

송준모(전산통계학과) 전임강사-응용통계
△학사: 서울대 통계학과
△석박사통합: 서울대 통계학과
최종학위논문명: Statistical Inference for Discrete and Continuous Time Stochastic Processes

최희복(건축학부) 전임강사-건축재료시공
△학사: 충북대 건축공학과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과
△박사: 고려대 건축공학과
최종학위논문명: 미세구조상의 순환골재-페이스트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2011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채를 통해 기금교수 포함 10개학과 14개 분야에서 14명의 교수가 9월 1일자로 새롭게 임용됐다. 이번 교수 공채 경쟁률은 4.83대1을 기록했다. 독일학과 및 경영학과는 경우 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남은 임기 학내 복지·생활 개선 힘써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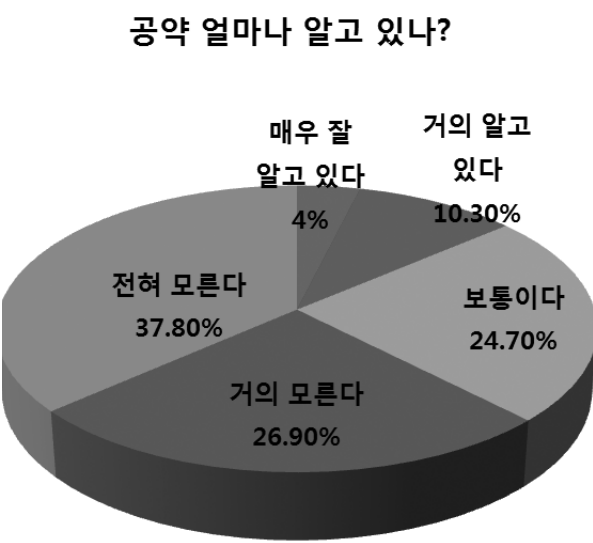
“총학 예산사용 내역 신뢰 못한다” 절반 가까이 응답

총학생회 중간평가

제43대 ‘뚝뚝뚝’ 총학생회의 활동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당선 당시 지난해 11월 18일자로 보도된 제주대신문 844호를 통해 “학생들이 지지해준 만큼 겸손한 자세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제주대신문에서는 재학생 54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접어든 총학생회의 지도도와 사업진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공약이행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제주대신문에서 총학생회 측에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설문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행된 공약에 대한 만족도와 추진 중인 공약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은 지면에 실을 수 없었다.



공약 모르는 재학생 절반 이상
사업 효과 느끼는 학생 14.7%에 불과

‘뚝뚝뚝’ 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총학생회의 공약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의 공약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답한 재학생이 총 59.1%로 나타난 것이다. 거의 모른다는 학생이 24.3%, 전혀 모른다는 학생이 34.8%로 모른다는 답변만 약 59.1%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거의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약 14.7%에 불과했다.

더불어 총학생회 사업(공약)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변한 학생은 14.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8.6%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8.6%는 총학생회의 사업(공약)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학생이 38.6%에 달해 남은 임기동안 총학생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 학생이 예산산 내역 “본적 없어”
43.7% 예산 사용 신뢰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불신도 드러났다. 응답자 중 89.5%가 총학생회의 예산·결산 내역을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43.7%는 총학생회의 예산 사용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2.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0.9%로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만 43.7%다. 이 질문에서 ‘보통이다’로 답한 비율은 43.5%이며 ‘조금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는 답변은 12.8%에 불과했다. 재학생 열명 중 네명은 총학생회의 예산 사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사용 내역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를 68.7%의 비율로 가장 크게 꼽았다. 총학생회가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예산 사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개설한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에 조차 예산 사용내역을 올리지 않았다. 예산사용 신뢰도 회복을 위한 총학생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부산대는 총학생회가 사용한 예산내역의 영수증을 스캔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또 전북대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3명, 전북대인문사 3명, 과대표 3명, 공개모집된 일반학우 5명을 감사위원회로 꾸려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소식지에 실어 학우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소식지는 개강 초 총학생회가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생들과의 소통 부족”
“학내 복지·생활 개선위해 가장 힘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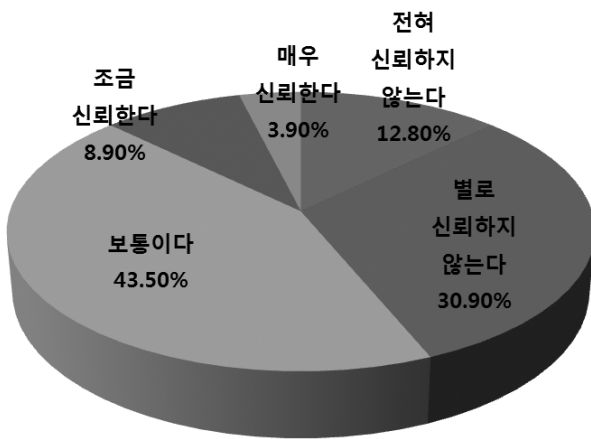
총학생회는 후보자 당시 2010년 11월 10일자로 보도된 제주대신문 843호를 통해 “앞으로 총학생회에 당선된다면 언제나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상반기 활동 중 ‘학생들과의 소통 부족’을 가장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총학생회의 상반기 활동 중 미흡한 점에 대해 1~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빈도분석 결과 1순위에 23.7%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꼽혔다. 2순위는 학내 복지·생활개선(21.1%), 3순위는 학생 권익 개선(16.8%)이다.

총학생회는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학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개설해놓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0월 4일 현재까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올린 게시글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앞으로 학내 복지·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한다고 꼽았다. 총학생회가 가장 힘써야 할 분야에 대해 1~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빈도분석 결과 1, 2순위 모두 학내 복지·생활 개선이 꼽혔다(1순위 24.2%, 2순위 22.1%). 이어 3순위는 학생 권익 개선(18.9%)으로 집계됐다. 학생들 사이에서 복지·생활편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총학생회의 사업진행에 있어 복지·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희 기자

총학생회의 예산사용을 신뢰하십니까?



총학생회 추진중인 공약

- 대학 정문 LED 전광판 설치
- 강의 홍보영상 제작
- 디지털 도서관 신축
- 도서관 CCTV 설치
- 도서관 산소발생기 설치
- 기숙사 모닝빵 9시까지 연장
- 2011 하계 국토대장정 실시
-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순환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 산천단 버스정류장 유치
- 무장애 공간 확대
- 발전협의회 설치(학생,교수,교직원)
- 학생 총장선출권 보장

취재 후기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제주대신문과 미리 약속한 지난 2일 인터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의 권영의 정책국장과 함께 자리하기로 약속한 인터뷰 당일, 총학생회장은 사전 연락 없이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정책국장만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대신문은 정책진행상황에 대한 내용만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용탁 총학생회장은 제주대신문이 수차례 연락을 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장의 답변을 지면에 실지 못한 점,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약 이행 차질 없게 서두르겠다”

인터뷰

총학생회의 활동이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 2일 총학생회 권영의 정책국장을 만나 상반기 동안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혹시 이행하지 못한 공약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데 등을 들어봤다.



현용탁 총학생회장(왼쪽), 부회장 박병준

-상반기 공약이행을 평가한다면?

“웬만해서는 1학기에 공약 이행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당선된 겨울방학 때부터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썼다. 가장 큰 결집물은 등록금 동결이었다. 형제자매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메인공약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등록금 동결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에는 우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공약 위주로 실천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방학때부터 등분서주 뛰어다녔는데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이 커 안타깝다.”

-이행된 공약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형제자매 장학금 확대는 내년 부터 시행하겠다는 학교측의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부원강의 확대 공약은 전보다 예산을 많이 들이고 유명한 강사진을 구성해 강의의 질을 높였다. 교재만 준비하면 중앙도서관과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에서 잘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다.”

취업박람회 공약도 지난달 30일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청년 잡페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또 오는 28일 고용인력지원센터와 함께 한라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무선인터넷도 확대됐다. 제주대 어플리케이션 역시 안드로이드용 개발이 완료돼 보급된 상태다.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도 앱스토어에 승인신청을 낸 상황이다. 곧 아이폰에서도 제주대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New comer day’ 행사도 성황리에 열렸다. 기존에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들이 제공됐는데, 올해에는 국기 중국인 유학생회장의 도움을 받아 통역도 진행되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회실도 마련해줬다.

기숙사비 카드납부 공약은 현재 제주은행서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공약을 이행했다. 차차 농협도 가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밖에 법학전문대 1호관도 개강과 동시에 개방을 했으며, 학생대상 할인혜택 확대, 7대 자연경관지지, 4.3위령제 사진영상전, 무장애공간 확대, 리걸클리닉 활성화, 순환버스 노선 변경 공약도 이행했다.”

-이행이 어려워 대체공약으로 진행한 사업도 있나?

“국토대장정 공약이 다른 공약으로 대체하려고 모색중이다. 국토대장정은 기획안을 다 만들고 업체까지 모두 선정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3명 가량에 그쳐 이행하지 못했다. 대신 기획국장이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선행과목 이수 팝업창 공약도, 팝업창을 띄울 경우 트래픽 초과 문제가 있어서 교수계획서에 선행과목을 표시하도록 해 공약을 대체 이행했다.”

-이행 추진 중인 공약은 무엇인가.

“예산과 관련된 공약이 많이 남아 있다. 올해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잘 해주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도서관은 신축을 위해 학교측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총장님도 내세운 공약이다.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교측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도서관 CCTV설치, 강의홍보영상 제작, 정문 LED전광판 설치, 장애인 화장실 비데 설치 공약도 예산이 결집물이다. CCTV설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 결과와 요청공문을 학생복지과와 중앙도서관 장님께 보냈다. 예산문제로 이행이 지연되는 공약들은 학교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해가겠다.

이밖에 생활관 모닝빵 시간 연장, 발전협의회, 총장선출권 공약은 계속 학교측과 논의중이다. 남은 임기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희 기자

중국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동경/후지산 4일
제주-니리타-외무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꾸거리

오사카/나라/쿄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교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버타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따알화산-하든밸리

인도

8일
인도/겐지스
제주-인천-델리-겐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맘곡

지중해

8일
터키/그리스
제주-인천-이스탄불-에페소-파묵갈레-안탈라카파도키아-아테네

캄보디아

5일
캄보디아/앙코르왓
제주-인천-씨엠람-앙코르왓사원-톤레삽호수-암살라민속디너쇼

태국

8일
방콕/파타야
제주-인천-방콕-수상촌-왕궁-파타야-산호섬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미동부
미서부
케나다
8일

유럽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8일

하나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

‘예·결산안 한번도 본 적 없다’ 92% 응답

총대의원의 중간평가

‘보통’ 평가에 머문 총대의원회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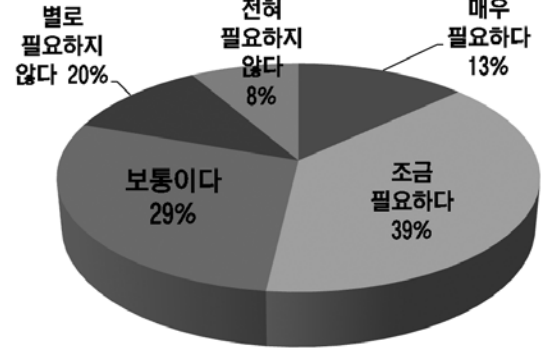
총대의원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 점수를 받았다. 총대의원회가 ‘공약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전혀 그렇지 않다’, 13.9%가 ‘그렇지 않다’, 72.6%가 ‘보통이다’, 7.7%가 ‘그렇다’, 2.6%가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이밖에 ‘예산심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 ‘총대 사업에 대한 효과 체감’ 부분에서도 각각 64.9%, 64.3%, 56.6%로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정치외교 4)의장은 “‘잘했다’, ‘못했다’보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며 “총대의원회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자치기구나 각 단대별 회장, 과대표 등의 감사나 전반적인 의견조율 등과 관련해 있는 기구이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이 잘 몰라 ‘보통’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총대 공약, ‘전자투표제’ 도입에 51.9% 필요하다

총대가 공약으로 내건 ‘전자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매우 필요하다’가 13.2%, ‘조금 필요하다’가 38.7%, ‘보통이다’가 28.6%,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11.2%,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8.4%로 집계됐다.

전자투표제 도입 필요성



김민석 (정치외교 4)의장은 전자투표제 공약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의 투표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한 선거구당 최소 5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집계하는데 오래 걸려 시간적, 에너지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표용지를 자로 찢어서 배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두 장이 갈 수도 있고 한 장이 제대로 안 찢겨 정확성 측면에서도 다소 떨어진다”며 이것의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크게 ‘electronic voting’과 ‘internet voting’으로 나뉜다. 전자의 투표방식은 선거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장소에서 전자시스템으로 투표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가 처음 이 제도의 도입을 생각한 1년 전에는 electronic voting을 생각했으나, ‘스마트폰’ 등 대체환경이 급변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제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internet voting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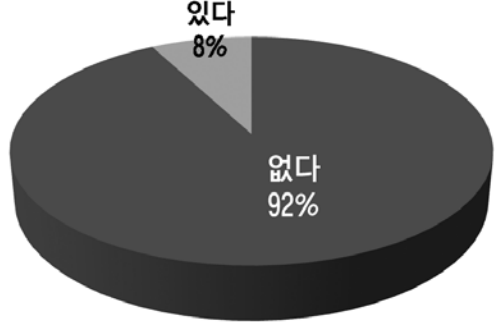
그는 “처음 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시작하려 했으나, 설문 결과 많은 학우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 이를 참고해 이번 관련 예산과 의견을 다음 총대의원회에 잘 전달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 대학도 시스템을 대어해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 시스템을 사서 실시하게 되

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대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학을 만들 수도 있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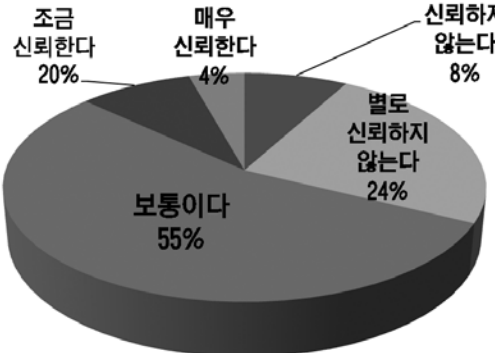
32.3% “예·결산안 신뢰할 수 없다”, 총대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감사참여제’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2.2%가 총대의원회의 예·결산안을 한번도 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32.3%가 총대의원회의 예·결산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 ‘예산 사용 내역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가 65.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총대 예·결산 내역 본 적 있다



총대의 예산 사용 신뢰하나



이에 대해 김민석 의장은 “학생들이 학생회에 불신이 많다는 것을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알았다”며 “그래서 그 불신을 없애고 학생들과 더욱 더 소통하기 위해 ‘일반아라 감사참여제’나 ‘익명제보 수시감사 확대’ 등의 공약을 이행했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무관심 문제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 홍보활동이 덜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총대의 소통을, 총대는 학생의 관심을 원해

‘상반기 동안 총대가 가장 미흡했던 분야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학생들과의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또 49.5%가 ‘앞으로 가장 힘써야 되는 분야’에 ‘학생들과의 소통’이라고 답해 응답자들이 학생회와의 ‘소통’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김민석 의장은 “소통하려고 노력 많이 했으나, 학생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각 과대표들에게 전화해서 참석해달라고 부탁해도 정족수를 겨우 넘는 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학과의 대표들도 참여를 잘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무관심은, 학생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대한 임무인 선거관리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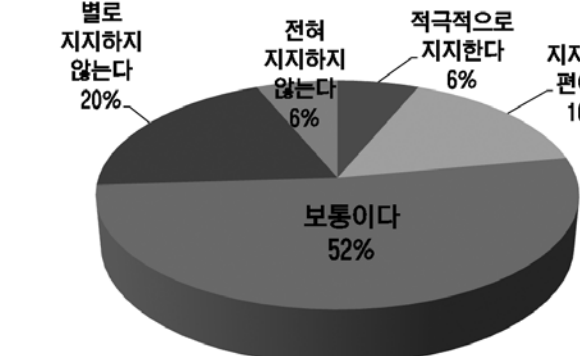
남은 임기동안 “문화·취업 프로그램 기획” 주력

총여학생의 중간평가

보통 밀도는 총여학생회 지지도, 총여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

총여학생회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1.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19.7%, ‘지지하는 편이다’ 15.8%,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6.3%,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6.3%가 뒤를 이었다. 이는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도가 대체적으로 높지 않음을 보여줬다. 또한 상반기 활동에 대한 점수는 평균 62.1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왔다.

총여학생회 지지도



총여학생회장 양혜재 (가정관리 4)씨는 “총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며 “여학생 회장실 문에 정책사항을 붙여놓는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에 따라 좀 더 다양한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여에서 여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매우 많은데, 그에 비해 많이 알아주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며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무관심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공약 인지도 낮게 나타나...학생들 확대운영위에 많이 참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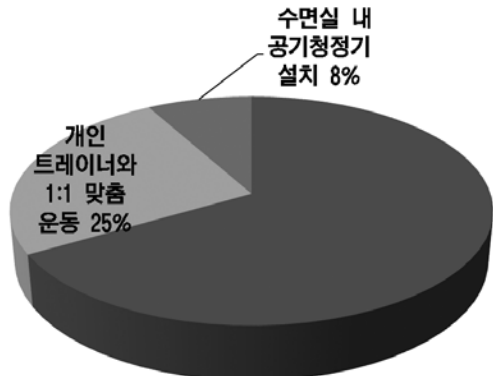
총여의 공약(사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3.0%, ‘거의 알고 있다’ 7.6%, ‘보통’ 24.7%, ‘거의 모른다’ 26.9%, ‘전혀 모른다’ 37.8%라고 답했다. 대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60%를 넘어, 총여가 내건 공약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음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공약은 선거 당시에만 홍보하고 임기 시작할 때는 따로 홍보하지 않았기에, 특히 신입생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상황은 확대운영위 때 보고하므로 여기에 참가하면 잘 알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모르지만, 확대운영위는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하반기 공약 상황 보고까지 다 끝난 상황이므로 아쉽 수 없지만, 다음 총여가 출범할 때 인수인계시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말해서 그때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중앙도서관 여학우 휴게실 가장 필요”

총여가 공약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1.6%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가 14.5%, ‘그렇지 않다’ 9.5%, ‘전혀 그렇지 않다’ 2.7%, ‘매우 그렇다’가 1.7%로 뒤를 이었다. 총여의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또한 이행한 공약 중 ‘매달 8일 여학우의 날 지정’ 정책이 15.8%의 수치로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시험 기간 간식 제공’, ‘시험 기간 수면실 23시간 개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 중 ‘중앙도서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공약



관 여학우 휴게실 설치’ 정책을 53.8%로 가장 많이 원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이미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공약 중 ‘개인 트레이너와 1:1 맞춤 운동’도 지난 9월 29일 열린 아라여생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했으며, ‘수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산 내역 본 적 없다’...사용 내역 공개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 압도적

총여의 예·결산 내역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가 6.5%, ‘없다’가 93.5%로,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총여의 예산 사용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2.9%, ‘조금 신뢰한다’가 9.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5%, ‘매우 신뢰한다’가 3.4%로 뒤를 이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에 한해 이유를 묻는 결과 ‘예산 사용 내역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가 72.1%에 달했고, ‘사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나머지 15.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학생들이 총여의 예산 사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며 “의사소통의 문제와 낮은 공약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또한 확대운영위 때 학우들의 참여가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사업 가장 미흡, 복지·생활 개선 가장 힘써야

총여가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남녀별로 다소 다른 답이 나왔는데, 1순위로 남학생은 ‘문화 사업’을 31.4%로 가장 많이 꼽았고, 여학생은 ‘복지·생활 개선’을 22.9%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2순위로 남학생은 ‘복지·생활 개선’, 여학생은 ‘여학생 취업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우리가 복지 위주의 정책을 주로 내걸다 보니 문화, 취업 관련 사업에는 조금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이번 학기 때는 문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남학생들이 ‘복지·생활 개선’을 미흡한 분야 각각 1, 2순위로 꼽은 데 대해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복지를 중점으로 평강회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학생들이 그러한 복지 정책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도 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서운한 입장을 내보냈다. 이와 함께 “총여학생회의 목적이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남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정책 장악금이나 할인 혜택 등은 남녀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산부인과 검진권도 남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은 총여학생회지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 더 이상 총여학생회가 필요지 않아질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학우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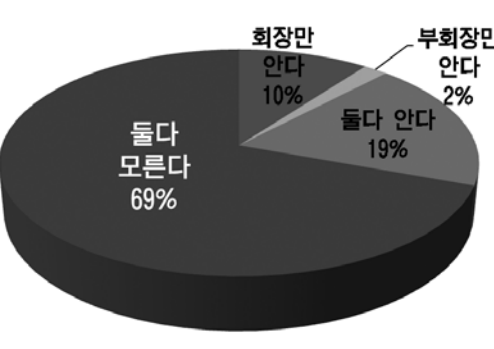
절반 가까이 ‘동연 활동 신뢰할 수 없어’ 평가

동아리연합의 중간평가

재학생 69%가 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름조차 몰라

YOU&I 동아리연합회(회장 홍영기 부회장 정우석) 설문조사 결과 ‘회장, 부회장의 이름을 둘 다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69.4%로 집계됐다. ‘둘 다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8.5%에 그쳤다. 회장 또는 부회장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10.2%, 1.9%였다. 이에 홍영기(경영 3) 동아리연합회장은 “학교 내에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을 학생들이 알 기회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동아리연합회의 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외부적인 행사가 많아지는 등 외부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인지도



75% 학생이 동아리연합회 공약 몰라

재학생 4명중 3명이 동아리연합회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연합회의 공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각각 23.1%, 51.9%에 달했다.

동아리연합회가 내건 공약은 6개다. 동아리 MT 확대, 동아리 연합회 체육대회, 타 대학 동아리들과 교류, 월간 매거진 발행, 각종 대외사업 추진, 학생회관 내부 동아리방 보수, 이 중 이 행한 것은 3개다. MT 확대는 기존에 이뤄지던 동아리연합회의 새내기 MT의 참여폭을 기존 동아리 회원까지 확대,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각종 대외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마련한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할 때 쓰는 삼각대(이젤)이다. 동아리연합회는 앞으로도 동아리 대외 물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 측과 협의해 학생회관 내부 동아리방에 노후화된 천장형 선풍기를 교체했다.

동아리연합회 측이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3가지다. 일단 기존에 친목대 있던 체육대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또 타 대학과 동아리 교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계속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사라캠퍼스, 기타 도내 전문대학의 분과 동아리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중풍이 행사에 이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월간 매거진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의 홍보를 도모하고자 했다. 할당된 학생행사 보조경비가 부족해 출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내 기업체와 스폰서십 연계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동아리연합회 중간고사 점수 ‘48점’, ‘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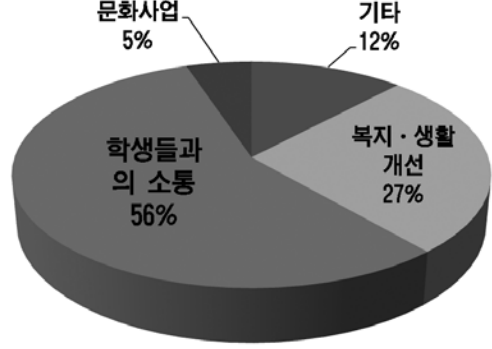
동아리연합회 1학기를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학생들은 50점도 미치지 못한 점수를 줬다. 거기다 108명의 응답자 중 5명이 0점을 기입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동아리연합회는 답답한 입장을 보였다. 홍영기 회장은 “선기가 끝나고 나서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인수인계를 받을 기회가 부족했다”며 “한마디로 경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일을 빚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래 활동하던 임원들 중 그만둔 사람도 있어 일을 해나가는 데 인력도 많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人的 문을 활짝 열려라!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연합회가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기타 의견에 ‘동아리연합회 문 좀 여시죠’와 같은 글을 써넣었다. 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학생들과의 소통 부족(49%)과 일맥상통한다. 동아리연합회를 찾아가면 심중팔구 닫혀 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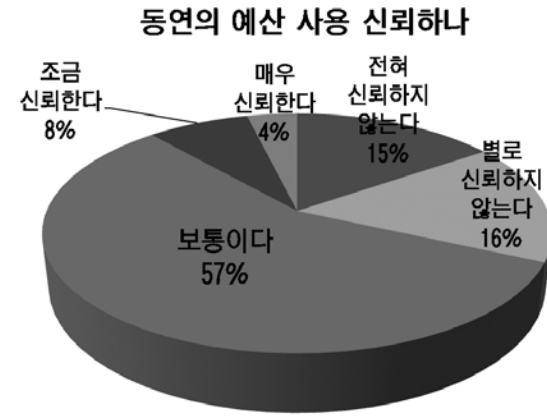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홍영기 회장은 “지난 1학기 동아리에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을 알리는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며 “동아리 활동

동아리연합회 미흡 분야



을 하는 학생들이 이 책자를 알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임원 수도 줄고 수업이나 외부 행사가 많아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었다”며 “학생들의 최대 불만중 하나인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 신뢰할 수 없다



절반에 가까운 45.8% 학생들이 동아리연합회의 활동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기 회장은 학생들과의 소통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숙이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로 꼽았다. 홍 회장은 “작년 선거가 끝난 후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며 “세부적인 것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 이와 같은 차질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영기 회장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나올 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BK21 연구팀 전국평가 1위, 그 감동의 현장

특성과 사업단 연상 <3> 해양의생명과학부 BK21 연구팀

지구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바다는 육지보다 생물이 살아가는 조건이 다양하고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다. 특히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해 신약, 신소재 등을 발굴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팀(사업팀장 이제희 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이하 사업팀)은 지난 2009년도부터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연 1억8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으며 해양바이오 분야에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해양의생명과학부 사업팀은 올해 ‘제5차 두뇌한국 21(BK21) 연차평가’에서 서울대·고려대 등이 속한 핵심과학기술응용 농수산해양분야 전국단위 8개 연구팀 중 1위를 차지했다.

새벽녘까지 식을 줄 모르는 연구열기 대학원생 주저자 논문 다수 발표

사업팀의 실험실은 바다의 노다지를 캐기 위한 연구열기로 새벽녘까지 뜨겁게 달아오른다. 생물을 연구하는 특성상 시간이 늦었다고 연구를 멈출 수 없기에 밤을 지새우는 일이 부지기수다. 한 대학원생의 책상에는 ‘꿈은 이루어 진다’며 노벨상을 꿈꾸는 문구도 적혀 있다. 빛바랜 문구가 오랜 꿈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시간을 보여준다.

사업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교수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연구의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독립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역량을 키운다.

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쌓아가며 대학원생들은 양질의 논문도 다수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2명의

대학원생들은 총 4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중 주저자 논문은 35편으로 활발한 논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사업팀은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논문 발표를 유도했다.

사업팀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득 박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논문을 마음껏 쓰고 있다”며 “특히 사업팀이 여러 연구분야가 묶여 있어서 서로 정보 공유와 연구내용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문

해외발표 64건 이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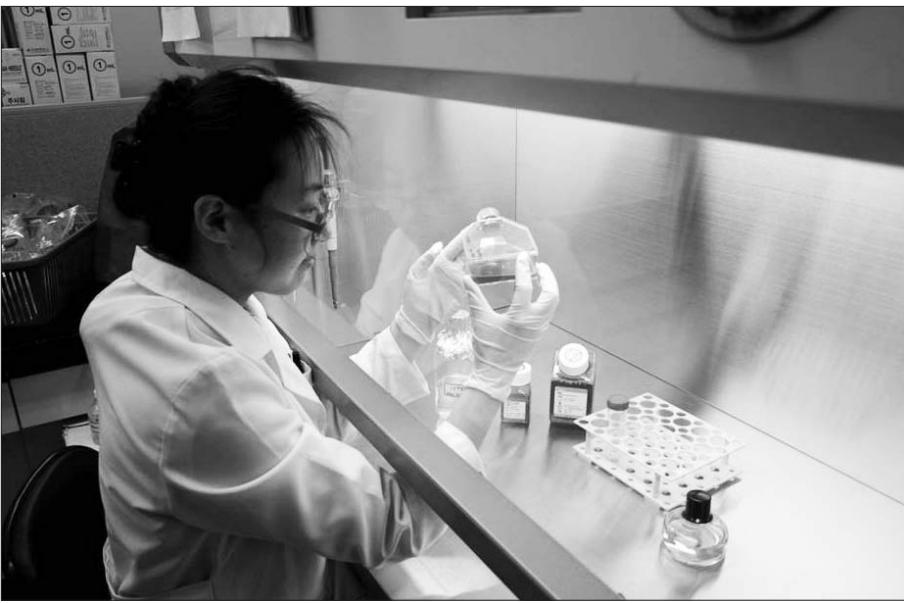
전공과목 60% 이상

영어수업 진행

돋보여”

해양바이오분야의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팀의 노력도 돋보인다. 사업팀에서는 참여 대학원생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국제 학술대회에서 총 64건(1인당 약 5~6건)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사업팀에서는 개설과목 중 논문지도를 제외한 전공선택 및 세미나 과목의 60% 이상을 영어로 수업하고, 세미나수업은 실제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 대학원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영어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월 21일



친환경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참여 대학원생이 어류 기생충인 스킨카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친환경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제공

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대학원생들의 우수 연구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 전공분야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참여 대학원생 다수 해양바이오분야 전문인력으로 진출

사업팀에서 꿈을 키우고 사회로 진출한 대학원생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지난해 2월에 졸업한 마하나마 디조이사 박사는 박사 학위 취득 시 최우수 연구상인 총장상을 수여받고 지난해 9월부터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교수로 임용돼 해양생물의 질병과 분자생물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같은해 졸업한 차선희 박사는 해양·아열대 생물분야 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차 박사는 제주해양생물과 제브라피쉬(zebrafish)를 이용하여 학문적·산업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졸업한 김길남 박사도

제주의 향토자원 생물을 이용한 의약·코스메틱에 대한 제품개발을 선도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박사는 제주 연안의 해조류에서 얻은 푸코잔틴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제희 사업팀장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연구를 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머지않은 미래에 노벨상을 꿈꾸며 열의를 불태우는 대학원생들. 이들이 함께한 연구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사업팀을 거쳐간 많은 이들이 해양바이오분야의 촉망받는 전문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별 헤는 밤. 친환경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팀의 연구실에서는 늦은 밤에도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 빗처럼 밝게 빛날 이들의 앞날이 기대된다.

고용희 기자

“교수·학생 연구 위해 지원인력 필요”

사업팀장 인터뷰

-해양바이오분야 연구의 중요성은.

“바다는 연구가 필요한 미지의 영역이다. 육상보다 바다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의 종도 많고 그만큼 연구 분야도 넓다. 육상생물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바다생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 물질들이 육상생물보다 해양생물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주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해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기후는 아열대로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해양바이오분야에서는아열대생물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 해양바이오분야 연구는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다. 활발한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최근 하고 있는 연구는.

“사업단 참여 학생들의 연구 뿐만 아니라, 참여 교수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연계열의 특성상 학생이 함께 연구에 필수적으로 실험에 참여해야 한다. 교수들이 활발히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류나 패류의 면역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복은 면역시스템이 척추동물과 다르다. 어류는 선·후천성 면역이 모두 발달돼 있지만 전복은 선천성 면역이 발달돼 있다.

이와 함께 양식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식어류는 질병이 심해서 폐사율이 50%에 이른다. 양식어류를 키



이제희 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우면 반은 죽는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백신 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사업팀 운영의 한계는.

“사업팀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데, 행정 인력을 따로 배치할 수 없어서 우선 회계학과 학부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 쓰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졸업 후 자기 분야를 훌륭히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논문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원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행정처리가 아니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모두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13년 2월이면 두뇌한국(BK)21 사업이 끝난다. 후속과제, 후속 사업팀 대학원생 지원 기획이 꼭 필요하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항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브랜드는 제품이 아닌 철학을 파는 것

21세기 브랜드 전략과 스토리텔링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브랜드(brand)는 말 그대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이름 그 이상의 것이다. 브랜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이자 끊임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은 유형의 제품 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를 통해 메시지까지 함께 판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브랜드라고 하면 먼저 회사나 제품 이름, 로고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브랜드는 색깔, 소리, 마니아 문화, 고객 서비스 등이 복합된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다. 또한 고정불변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고 퇴보하는 경제 생명체이기도 하다. BMW 자전차가 700만원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이나, 디자인의 명가인 반앤올웍슨의 CD 플레이어가 초고가인 것도 브랜드를 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브랜드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적게는 1000개, 많게는 2000개의 후보군 가운데 고르고 골라 30개 가량을 선정한다. 로고 디자인도 200~300개 시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10개 가량으로 압축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건 고객인 기업을 설득하는 일이다. 최소 5~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일이라 그렇다. 주로 네이밍은 한 달, 컨설팅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메타브랜딩에서 만든 브랜드가 SK의 ‘OK캐시백’, 삼성전자의 ‘하우젠’, KT&G의 ‘타임’,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전기밥솥 ‘리홈(LIHOM)’ 등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웹2.0시대의 본질은 참여, 개방, 공유다. 20세기와 21세

기는 다르기에 ‘21세기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증명한다. 끄떡없을 것 같았던 삼성전자도 위기를 맞고 있고, 미국 대학생들이 만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은 세계적인 상품이 됐다. 이러한 21세기 경영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글로벌이나 디지털이 아닌 ‘경계 없음(보더리스, borderless)’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산업의 경계,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 제조와 유통의 경계,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화장품 회사로 알려져 있던 (주)태평양은 ‘미와 건강을 판다’며 식품 경영에 뛰어들어 오래됐다. 비타민 음료인 ‘비타500’도 음료 회사가 아닌 제약사가 만들어낸 제품이다.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만 하던 것도 옛말이다. 유통업체로 알려진 이마트가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직접 기획한 상품을 위탁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 삼성은 ‘디지털 멀티프라이즈’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기업이 상대해야 할 경쟁자도 바뀌고 있다. 나이키의 경쟁자가 동종 업계인 아디다스나 뉴마라고 보는 것은 20세기적 사고다. 이들이 아닌 ‘엑스박스(xbox)’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 게임기다. 이들이 출시되면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그래서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경쟁기업들이 지금은 동지로서 동지 ‘아웃도어 스포츠가 진정한 스포츠’라고 뜨거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철강회사의 경쟁자는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외관 프레임용을 제작하는 화학회사이다. 기존 은행의 경쟁자는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아닌 수천만대의 단말기를 퍼뜨리고 있는 통신회사이다. 철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강회사가 ‘우리는 철강회사만 조심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 기존의 산업분류표를 통해 기업을 나누는 것은 옛날식이다. 대신 ‘고객의 욕구(needs)’를 들여다 봐야 한다.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아니라 즉석에서 사진을 찍는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자 폴라로이드가 사라졌다.

미래형 브랜드에서 찾아낸 21세기형 브랜드의 특징은 확장된다는 것(ending), 상호교감적이라는 것(Interactive), 종교적인 브랜드라는 것(Symbolic),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것(experiential), 감성적이라는 것(emotional) 등이다. 이 특징들은 21세기 웹 2.0시대의 본질인 ‘참여, 개방, 공유’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수용한 자만이 리더가 된다. 제주도 캔담 문화는 철저히 개방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할 때는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행동하는 2%가 생각하는 98%를 지배한다

비전 성공학-꿈의 영토를 확장하라

홍웅식 한국직무능력개발원 원장

오은선이 여성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했다. 과거에는 1년에 2~3명이 겨우 오르던 인간의 한계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 100명이 오르는 ‘동네 뒷산’이 됐다. 70세 할머니부터 16살 어린 소녀까지도 오른다. 이유는 베이스캠프의 위치에 있다. 2000m 지점에 있던 베이스캠프가 장비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6700m 고지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다. 이는 산의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스캠프에서 불과 2000m만 올라가면 산을 정복한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보면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꿈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꿈은 내가 가야할 곳이 아닌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빌게이츠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중퇴한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꿈은 가능성이 아닌 신념으로 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한다. 안개길 이론이란 말이 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곳까지 가라. 그러면 또 가야할 길이 보인다. 한걸음만 더 나가라. 꿈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꿈을 남에게 찾아 달라 하지 마라. 꿈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이며, 성공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라고 해서 서울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왜 취업이 안 될까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회사에 어떻게 들어갈까가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더 다

양한 길이 열린다.

야생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의 뒤를 쫓을 때 초식동물이 이를 이길 확률이 80%에 이른다. 육식동물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지만 초식동물은 생존을 위해 뛰는 것이다. 게다가 육식동물은 500m 이상을 한번에 최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지난 겨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는 최고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이기고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는 김연아가 피겨기술을 익히기 위해 목숨 걸고 연습한 한 걸음의 결과이다. 아사다 마오의 피겨스킵은 세계최고이다. 트리플악셀을 3번씩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구사할 수 있는 여자 선수는 아사다 마오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그랑프리파이널에서 통탄의 트리플 악셀 때문에 은메달에 그친 김연아는 세계 최고의 트리플악셀 스승인 브라이언 오서코치를 찾아가 목숨 걸고 연습한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부상뿐이었다. 그런데 김연아는 어떻게 자기보다 뛰어난 아사다 마오를 이기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 했을까. 이유는 트리플악셀이란 성공률이 낮은 자신의 단점을 과감히 포기했기 때문에 피겨 여제로 우뚝 섰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용품 전문회사 나이키가 2003년 이후 매출이 떨어진 것은 강력한 경쟁회사 닌텐도 때문이다. 게임에는 학생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부터였다. 2006년부터 애플과 함께 엠피쓰리(MP3)가 달린 신발을 개발했다. 똑 같은 레시피를 놓고도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의 맛과 향이 다르듯,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열정은 힘되고 고단한 현재의 삶을 활기



홍웅식 한국직무능력개발원 원장

차고 희망의 미래로 넘어가게 하는 디딤돌이다. 열정과 더불어 평범한 우월을 거부하고 어렵고, 더럽고, 힘들지만 차별된 삶을 꿈꾸는 자만이 험난한 세상과 맞서 당당히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미래는 발밑에 와 있다. 단지 확신이 안 돼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생각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 생각의 속도로 실행해야 한다. 할 수 없다는 것과 해볼 적 없다는 것은 다르다. 미리 한계선을 긋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해보면 되는 게 참 많다는 것을 느낀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 개개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마음껏 품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했으면 좋겠다. 행동하는 2%가 생각하는 98%를 지배한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무론유설

우 호 춘
수의학과 교수

내 강의(성과학)를 수강하였다는 학보사 기자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주대신문에 글을 기고해 달립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수락하였습니다. 그 날부터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풍요롭고 좋은 계절에 사랑에 대한 나의 생각을 두서없이 글로 써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습니다. 대체 남녀는 왜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욕구는 식욕보다 강하며 생존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 줄 배우자를 찾는 여정에서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자체가 인생이라는 멜로드라마인 것입니다.

확적합성복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확적하지는 않으나 제대로 된 짝이며 비로소 이를 만났을 때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

는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열정적인 사랑에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파민은 사랑을 출발시켜 쏘발 완성은 시켜 주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로서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채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나서는 남녀에게 또다시 사랑의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남녀의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고 활력이며 어쩌면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서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원태연의 ‘시’입니다. “그냥 좋은 것” “이유와 조건 없이 마냥 좋은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까? 나도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봅니다.

사랑이란

행복한 결혼생활과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샘물 같아서 줄수록 언제나 넘쳐흐르지만, 받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목이 마르게 됩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때는 보배이지만, 숨겨 두면 세월 따라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은 받기보다 아낌없이 주어야 행복해지는 보물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내가 보낸 사랑이 상대방에게 갔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행복이 되도록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주고 나서 왜 상대방이 행복해 하지 않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아서 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진정 내 아내가 바라는 사랑을 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32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는 ‘시’로

서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 ‘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청춘일 때 만났던 모든 여성들에게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지는
나도 모른다.
단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단 한번 당신의 눈동자를 보기만 하면
내 마음 괴로운 흔적 사라지고
얼마나 즐거운 마음인가는
신만이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지는
나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방법이 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상대방이 서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입니다.

“Love changes every thing”

돌아보방

매년 이맘때쯤이면 연례 기획으로 제주대신문사에서 ‘총학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넷을 통해 공약이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신문을 통해 알린다. 올해는 일만아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600부 가량의 설문지를 제작배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무조건 학생회를 ‘비판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회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고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학생회가 이행한 공약들을 설문지 내용에 포함시켜 어떤 공약이 있는지 동시에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컸다.

지난주 제주대신문사에서 학생자치기구와 관련해 설문지를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했고, 필자는 총학생회의 상반기 예·결산 관련 취재를 다녔다. 이 두 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우선 총학생회, 총학생회, 총대외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예·결산 내용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각각 43.7%, 30.4%, 32.3%, 31.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나’

라는 질문에 각각 68.7%, 72.3%, 65.5%, 59%가 ‘예산 사용 내역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학생회 회장 대대로 해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서’도 심심찮게 발견됐다. 보이지 않는 정보에 학생들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들에게 낮은 점수를 매겼다.

총학생회 예·결산과 관련해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해 영수증 공개를 요청했으나 소통하겠다면 똑똑똑 총학생회의 정호준 사무국장은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인데 왜 영수증을 보여줘야 하나”며 “보여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들의 성벽은 높고 단단한 것이라 총학생회 회장을 만나는 절차도 까다롭다. 총학생회 회장에게 전화하면 우선 받지 않는다. 사무실에 찾아가면 미리 만나는 약속도 안정하고 오는 경우가 어딴냐고 호통을 친다. 정호준 사무국장은 “총학생회 회장과 만나고 싶으면 직인과 시행번호를 찍어 공문을 작성하라”고 한다.

지금의 제주대 총학생회를 보면 함부로 접근해선 안될 정보처럼 보이지만 타대학의

경우 학생회 공약이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전북대 총학생회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공약을 올려놓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날짜와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하고 공약 이행률을 표시해, 학우들이 공약이행사항을 알기 쉽게 했다. 결산안과 관련해 전북대 총학생회 구준희 학생복지국장은 “학보사에는 모든 영수증을 복사해 제공하고, 학우가 영수증 공개를 요구할 때 보여주는 것이 학생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니냐”고 말했다.

부산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을 스캔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린다. 부산대 총학생회 정수범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은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영수증을 스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이 두 대학의 총학생회에게는 학생들의 관심도 많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바로 볼 수 있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타당



독짜기고

고 동 호
행정학과 1

요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 떠돌썩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이뤄진 것이다. 그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외치며 주민투표를 열었고 33.3%가 안돼 투표함도 못열이고 사퇴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이 좁에서 보궐선거를 하게끔 한 최초의 원인인 ‘무상급식’과 관련해 논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자면 ‘공짜로 급식을 준다’라는 뜻이다.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일 수도 있다. 공짜로 밥 먹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정당은 무상 급식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당에서는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공짜로 급식을 배급하자는 말이다. 만약 이것이 아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면적인 무상 급식에 태클을 거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돈’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만큼 돈은 없다. 그러니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OECD(경제 협

력 개발 기구) 국가 중에서 복지 예산이 현저히 적은 나라이며 전면적인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란다. 말은 옳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뜬구름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급식의 질은 저하될 것이며 이런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상 급식의 혜택을 주자는 ‘선별적인 무상 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무척 효율적으로 보이며 그만큼 예산도 적게 들 것이다.

그러나 혹시 예전에 사극 <추노>를 본 적 있는가? 거기에서는 노예임을 증명하는 낙인을 찍는 장면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아이들에게 ‘가난의 낙인’을 찍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고, 선별적 복지도 훨씬 합리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어떻게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예산이 현저히 낮은 민주당의 주장은 조세 부담률을 생각해 보자. 복유럽과 같은 복지 국가 모델을 따르려 하지만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포퓰리즘이며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세월은 가도 사람 관계는 남아



독짜기고

고 윤 선
정치외교학과 1

수업시간에 비포셋(Before Sunset)이라는 영화를 봤다.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진실과 거짓’에 있다.

영화는 오로지 제시와 셀린의 대화로 전개된다. 그들은 이전에 만났었고, 다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들은 재회하지 못했다. 제시는 약속장소에 갔다. 그리고 셀린은 자기가 가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 간 것’과 ‘가지 못한 사정’은 ‘과연 진실인가?’라는 의문에 부딪힌다.

일단, 영화에서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진실이라고 가정하 채 진행된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시와 셀린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로 제시와 셀린의 상황은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 수많은 진실과 거짓,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일까? 진실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추측뿐이다. 이처럼 이 영화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선거할 때, 후보의 공약이 실천될지 되지 않을지 모른다. 단지 우리는 후보를 믿거나 추측하여 판단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반문해봐야 한다. 과연 내가 하는 말

과 행동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일까.

제시는 결혼도 했고, 작가라는 직업도 가졌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셀린도 남자친구가 있고, 자기가 원했던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다지 행복해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과 사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간에 맺어진 상호 인간관계, 즉,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만남은 중요하다. 타인과의 소통이 힘들더라도 인연은 소중하고, 만남이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 사이에서 희망으로 작용한다.

영화에서도 만남이라는 요소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평범하게 또는 사회에 순응하거나 억지로 현실에 맞춰 살아가고 있던 두 주인공이 만남을 통해 서로 만나는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셀린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긴 것이다. 이 영화는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끝이 난다. 열린 결말이 주는 여운은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맺어온 사회적 관계가 주는 의미인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립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보다 진실으로 상대방과 공감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셀린처럼 만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만남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도 있어야 현대 사회에 순응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은 있다고 느낄 것이다.

동문칼럼

상식이 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하며



장윤식 (식품공학과 82학번)
제주 4·3 평화재단 연구원

물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임은 해볼 만하다. 어느 누구라도 잘못하면 심판이 휘슬을 불어 제지하고 심하면 퇴장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시합의 승자는 진정으로 환호할 것이고, 패자 또한 승자를 축하해주며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사회는 공정한 게임과는 멀어 보인다.

우리는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의 불공정한 사례를 무수히 보고 있다. 몇 십만원, 몇 백만 원의 생계형 범죄로 실형을 언도받는 힘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보다 수백 배의 탈세와 횡령을 하고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여전히 기업 활동으로 돈을 버는 재벌 혹은 권력층의 모습을 쉽게도 보아왔다. 같은 폭행죄라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받는 죄 값의 무게가 다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불공정에 무뎌져 있다.

그러니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버젓이 국가의 살림을 꾸려갈 장관자리에 앉히는 비상식이 통하는 것이다. 공정한 룰 적용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또한 이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나설 정의감이나 용기를 가르치는 대신에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남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탈법이나 불법, 속임수도 괜찮다고 몸소 보여줬다.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연과 인간의 공생,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보편적 진리와 소중한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겨를 없이 자기 앞만 보고 내달리는 무한경쟁체제로 사람들을 내몰고 말았다.

모두가 불법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성공’이라는 한 곳만을 바라보며 치고 달리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뒤처지거나 아예 출발선상에 나서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 부당하게 밀려나고 뒷방아쇠 사람들의 아우성과 분노,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신과 불안감...

정당한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를 써 봐도 부당한 불공정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상태가 지속되고 고착화된다면 돈과 권력, 즉 힘 있

자신감 회복에 최고인 라인댄스

평생교육원-라인댄스 강좌

“원 투 쓰리 포! 또 잊어버려수파?”

오늘도 수강생들은 지난주에 배웠던 스텝을 기억하기 바쁘다. 줄을 맞추다보면 동작이 틀리고, 동작에 신경쓰다보면 줄을 이탈한다. 그래서 수강생 모두가 고3 수험생 못지않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춤꾼이 돼간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라인댄스 강좌, 홍인숙(체육학부) 강사의 재치 있는 입담과 현란한 댄스가 수강생들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준다.

라인댄스는 여럿의 사람이 줄을 맞춰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같은 동작의 춤을 추는 것으로 집중력과 협동심이 필요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시즌에 유행했던 ‘꼭짓점 댄스’를 생각하면 라인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 동작을 반복하는 라인댄스는 뇌를 활성화 시키며 몸을 유연하게 해준다. 특히 살을 빼기에 적합한 운동이다. 라인댄스의 장르는 힙합, 재즈 등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강의 시간에는 라인댄스 뿐만 아니라 라인댄스를 응용한 차차차, 자이브, 왈츠 등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강좌는 주로 주부들이 듣고 있지만 주부들 사이에서 남자 교수, 대학생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담당강사 홍인숙씨는 라인댄스를 배우고 싶으나 망설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면서 “할 수 있을까? 라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절단격하



라인댄스 강좌 시간에 수강생들이 흥겹게 댄스를 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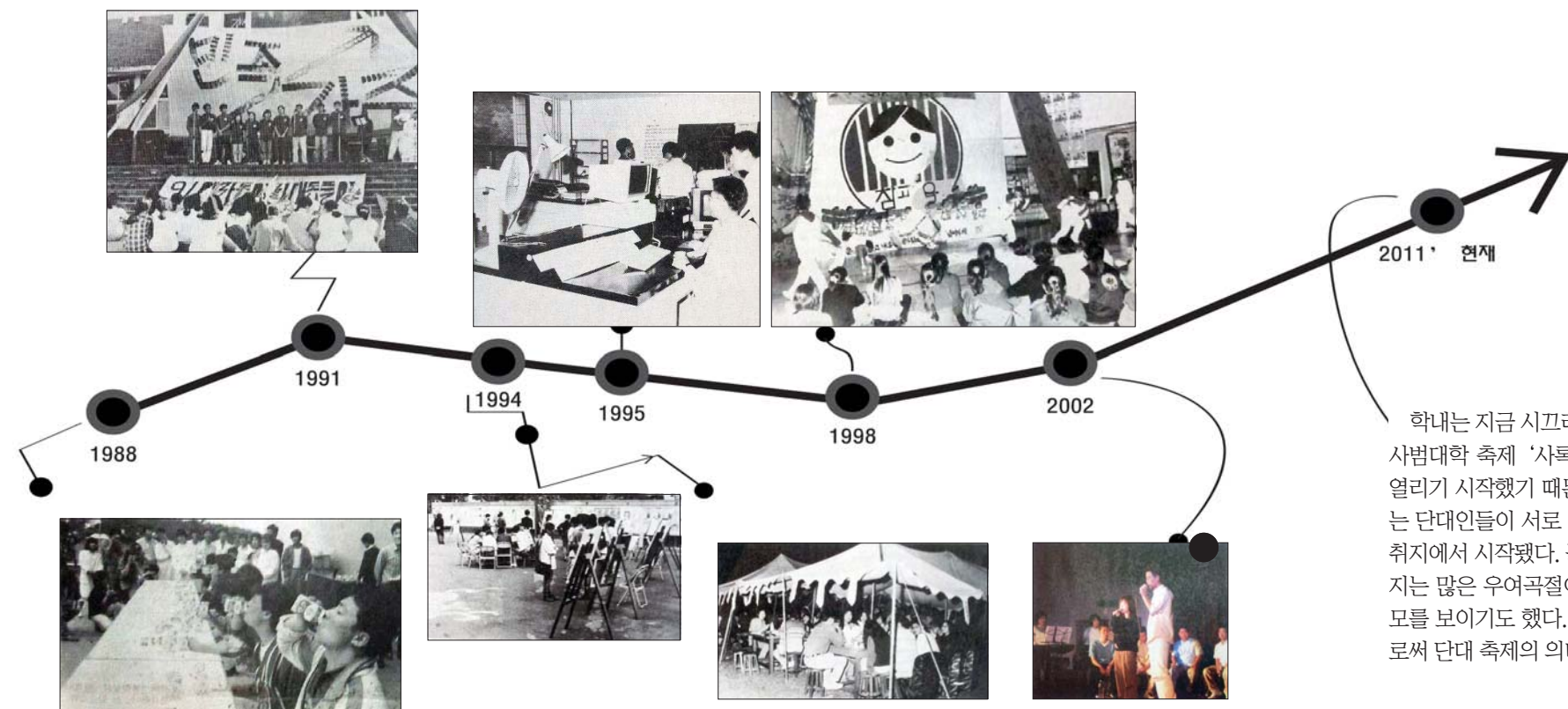
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벌써 흥 강사의 ‘잘난척’을 배운 듯하다. 겨울 속에 비친 수강생들은 가슴이 이리저리 보다 요염하고 가슴 손담비 보다 도도해 보였다. 그들이 춤을 추며 내뿜는 눈빛과 미소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을 듯하다.

최순남(58, 우도면)씨는 라인댄스를 배우기 위해 매년 우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대에 온다. 그는 “라인댄스를 배우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커졌다”며 “부끄럼이 많아지는 나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윤혜란(56, 일도2동)씨도 “평소에 우울감이 있었다”며 “강좌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민성 수습기자



‘풍성한 학술제’ 과거되고 ‘코드’ 다른 단과대 축제로 도약

학내는 지금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환호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범대학 축제 ‘사목제’를 필두로 각종 단과대학(이하 ‘단대’) 축제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매년 가을마다 진행되는 연례행사인 단대 축제는 단대인들이 서로 어우러져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물론 지금까지로 제대로 된 단대 축제 문화로 자리잡아가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과거의 단대 축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연도별로 단대별 축제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돌아봄으로써 단대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편집자주>

80년대 전반-학술 관련 행사가 성행
처음에는 단대 축제라는 게 따로 없었다. 개교 기념으로 매년 진행되는 ‘아라축전’에서 학과별로 치러지던 행사가 전부였다. 그때에도 이목을 끈 행사는 몇 개 있었는데, 80년대를 전후로 열리기 시작한 영어교육과의 ‘Parnassus제’, 독어독문학과(현 독일학과)의 ‘독문학의 세계’, 영어영문학과(현 헬리콘)의 ‘Helicon 축제’ 등은 학과 나름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인정받았다.

단대 축제의 시초로 불릴 만한 축제는 1983년 가을 개최된 농과대학(이하 ‘농대’, 현재 생명과학대학으로 바뀜)의 ‘아라소농제’다. 그간 학과 행사로 분리해 오던 추수감사제, 축산의 날 행사 등을 단대 행사 차원으로 통합,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85년 5월 열린 학과 행사에서는 학과 특성에 맞는 타이틀을 건 학술문에 행사가 주류를 이뤘다. 학과의 분위기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색이었는데, 국어국문학과(이하 ‘아라어 문학’, 독어독문학과(현 독일학과)의 ‘독문학의 세계’ 등이 이뤄졌다. 김경훈(87학번 국어국문학과 졸업) 등은 “그 당시 ‘아라어 문학’은 방언과 마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제와 제주도 개발 문제, 이를테면 서귀포 골프장 반대 등의 시사적인 주제를 가진 마당극을 진행했는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80년대 후반-단대 축제 본격화
최초의 단대 규모 축제는 이공대학(현재 공과대학으로 바뀜)에서 열린 ‘목련제’였다. 목련제는 학술발표대회, 춘극 가요제 및 물리학과(현 물리학의 발달사), 생물학과(현 표본전시회) 등 학과 특성의 전시회, 시화 등으로 구성됐다.
그 뒤 단대별 가을 행사가 성황을 이루 단대 축제라는 개념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됐다. 1987년 인문대학(이하 ‘인대’)의 ‘제1회 진양제전’과 사회과학대학(후에 경상대학으로 주취 바뀜)의 ‘제1회 씨울제’가 각각 첫 스타트를 끊었고, 사범대학(이하 ‘사대’)의 ‘87사목제전’, 농대의 ‘소농제’, 해양과학대학(이하 ‘해대’)의 ‘해양제’ 등 많은 단대 축제가 가을 행사 동안 열렸다.

90년대 초반-정치운동과 맞물린 투쟁의 축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학내 전체가 노태우 정권 분쇄를 주장하는 데모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축제에도 반영돼, 1990년 가을 축제는 시사 문제를 다룬 진보적 성향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됐다. 법정대학(이하 ‘법대’)의 ‘한라청맥제’에서는 법학과 주치의 ‘헌법소원에 의한 동성동본금혼제의 위헌여부’라는 주제를 다룬 모의재판이 열렸고, 농대에서 시행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촌 영향 및 대처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학술 행사보다 놀이 중심의 행사가 대부분이라는 문제는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학생들의 참여 의식 부재와 학술 중심 행사는 없고 소비 향락적 문화만 남은 행사, 이러한 단대 축제의 고질적 문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져만 갔다.

90년대 전반-폐지된 대두... 참여율은 계속 저조, 소비 향락적 문화 일색
날이 갈수록 단대 축제의 의미는 퇴색돼 학술 행사보다는 소비 향락적 행사 위주로 진행됐다. 축제 기간은 곧 휴강 기간, 그에 따라 축제가 아닌 개인적 용무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로 인해 참여율은 회마다 저조하기 짝이 없었다. 93년 11월 16일자 발행된 제주대신문 사설에서 허남춘(국어국문학과 교수)은 학생들의 ‘놀이불감증’을 꼬집기도 했다.
94년에는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 기획이 돋보였지만 역시 학술 행사가 빈약하고 놀이 위주의 감상적 행사라는 질타를 면치 못했다. 단대 축제의 경우 학술 행사가 경상대의 ‘여성과 법률’ 초청 강연과 일부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오던 행사 기간 문제도 문제사였다. 단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2학기 가을 축제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1학기 아라제전의 일정이 조정, 통합되지 못해 면학 분위기에 저해와 수업 결손 문제로 계속 지적됐다.

90년대 중반 이후-꾸준한 변화 모색, 결과는?
95년 가을축제에서 몇몇 단대는 그러한 문제점을 시

정, 경상대, 법정대, 자연대, 공과대에서 단대 축제와 과 축제 기간을 거의 일정하게 하여 단대와 학과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해 지적받아 오던 학술 행사 빈약 문제를 자연대와 공과대의 전시회와 각 단대마다의 초청 강연을 통해 학술적 분위기의 행사로 변모시켰다는 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96년의 가을축전은 각 단대마다 학과 행사를 축제 기간 동안 치르게 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2주간 걸쳐 산발적으로 치러지던 가을 축제가 올해부터는 단대간의 논의를 통해 일주일 내에 치르기로 기간이 조정됐다. 인문대의 경우 초청강연과 연합학술제, 해양대에서는 취업 진로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전통적으로 빈약했던 학술 행사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단대와 학과에서는 ‘가요제’ 형식을 띤 행사와 소비 지향적

이름으로 알아보는 단대별 축제의 의미

경상대학-씨울제
‘씨울’은 민중 혹은 낱알이라는 뜻으로, 민중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경상인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민중화된 88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하나하나 힘을 모아야 했던 것처럼 낱알들 즉 경상인들이 하나하나 모여 그 힘을 결집시키고,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법정대학-청맥제(靑脈祭)
청맥(靑脈)은 젊음의 패기와 순수함을 갖춘 청년의 기상을 이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법정대학의 청맥제는 각 과에서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제를 기획해 학우들에게 전하고 있다.
자연대학-연광제(然光祭)
‘자연과학대학 영원히 빛나라’라는 뜻이 숨어 있는 연광(然光)의 연(然)은 자연

대학의 연에서 따온 것으로서 무궁한 진리의 물질적 표현, 즉 우리의 경험 대상의 전체인 자연을 일컫는다. 광(光)은 빛남을 뜻한다. 따라서 연광제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적 욕구와 더불어 마음의 풍요함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대학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어우러짐을 통해 자연인의 순수함과 조국 사랑의 열정이 더욱 빛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공과대학-여울제
‘여울제’는 여울목에서 따온 이름으로, 여울목은 여러 갈래의 물이 모이는 곳을 이른다. 89년 이공대학에서 분리·개편된 공과대학은 현재 제주대 내에서 학과가 가장 많고 다양한 단과대학으로, 분야가 다양해 화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각 학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후배가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행사를 통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과대학의 대동제를 여울제라 부른다.
의과대학-의연제(醫緣祭)
의연은 의(醫)로써 맺어진 인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의과생 전체가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 의연제라는 명칭을 갖게 됐다.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 김순재(국어문화원 연구원)
그림 / 고아라 특별기자
⑩ 그무꼬다



▶ **날말들이**
무신: 무슨 너네: 너희
셔?: 있어? 그무간: 뻘어서
갓저: 갔다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대학생 아카데미

기간 ▶ 2011년 8월 30일 ~ 12월 6일(개강 8월 30일)

주최 · 주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목소리

홍페이지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acebook.com/JDCAcademy

강의일정

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원희룡 국회의원 청년의 꿈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국가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소장 비전설계와 공정의 발전	 박항기 (주)메타브랜딩 사장 21세기 브랜드전략과 스토리텔링	 홍웅식 한국직무능력개발원 원장 비전성공학 - 꿈의 영토를 확장하라	 이지성 '꿈꾸는 다락방' 작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오경수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오은선 선악인 오은선의 도전과 열정	 이종범 트레이닝 센터 바람의아름 이종범 그의 꿈-나이는 도전	 성연미 블로그라이터 대표 아나운서스피치에서 배우는 Win Win Speech	 이지스민 물방울농촌 사무총장 다문화가 만들어 가는 미래 한국의 힘	 김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스티브잡스처럼 생각하라	 송동현 strategy sales 이사 소셜미디어시대를 향한 꿈과 도전
 서진규 서진규비즈니스연구소 소장 나는 희망의 증가가 되고 싶다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T.064) 754-2307

홍페이지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acebook.com/JDCAcademy